지방선거 D-1 여수시장 후보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엑스포·해양경찰대학 유치 격론

광주일보와 KBC는 29일 오후 6시부터 열린우리당 김강식, 한나라당 김용우, 민주당 오현섭, 무소속 심정우 후보 등 여수시장 후보를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 해양경찰학교 유치 등과 관련해 후보자들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김강식 후보

김용우 후보

오현섭 후보

심정우 후보

◇ 모두발언

▲오현섭=연습이 필요없는 준비된 행정가다. 중앙과 지방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다. 도시개발 전문가로서 새롭게 여수를 디자인 하겠다. 오현섭 브랜드로 새로운 여수를 설계하겠다.

▲심정우=4년전 낙선해서 여수발전을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일했다. 대통령 면전에 두 번이나 여수 엑스포 유치를 도와 달라 건의했다.

▲김강식=여수의 현안문제는 2012년 세계박람회다. 경험보다는 아이디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경제전문가로서 잘 사는 여수를 만들 것이다.

▲김용우=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산업 육성과 여성 노인 고용 창출 등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각종 행사 유치가 불가능하다.

◇ 공통질문

▲사회=2012년 세계 박람회 여수유치 추진을 위한 가장 큰 문제는.

▲김용우=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유치 열기 조성, 주제 선정에 있어 창의적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축제가 아닌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유치하는 광역적인 이벤트가 필요하다.

▲심정우=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의지가 중요하다. 철도 복선화,특급호텔, 교통시설, 시가지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을 대거 확충해야 할 것이다.

▲김강식=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은 당이 돼 공조체제를 구축, 정부에 강력히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숙박시설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오현섭=단체장의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확정된 국가사업이다. 여수박람회는 여당이면 되고 야당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엑스포 전문가다.

◇ 상호토론

▲심정우=엑스포 유치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넸다. 여수 전 지역 해안일주도로를 건설할 것이다.

▲김강식=전주~광양간 고속도로는 2조 8천억원으로 준비 중이다. 해안일주도로 건설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심정우=9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강식=해안도시의 특징은 해안도로를 어떻게 조경을 아름답게 하느냐가 숙제다. 그에 대한 계획은.

▲심정우=천혜의 자원을 살릴 수 있는 여수만의 특성이 있는 맞춤형 해안도로를 개발해야 한다. 일부분만 있던 해안도로를 나머지 도로까지 넓혀야 한다.

▲오현섭=열린우리당 의장이 남북한 공동개최를 제안했는데 한건주의가 아니냐.

▲심정우=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선거때만 되면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김강식=SOC조기확충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남해안 관광도시를 구축해 여수를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다.

▲오현섭=기업은 물류, 인프라 등 기업하기 좋은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김 후보는 단순히 인맥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김강식=기업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거기에 인맥이 중요하다.

▲오현섭=시민대통합과는 다르다. 학교, 지역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것인가.

▲김강식=학연,지연 등을 가른다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이다. 혹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있지 않나?

▲김용우=무슨 기업을 언제까지 몇개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김강식=조선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김용우=여수의 관광특구 지정 이유는.

▲김강식=세계해양박람회를 치르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관광특구 지정이 도움이 많이 된다.

▲오현섭=지중해형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하겠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시대를 개막하겠다. 기업유치,고용안정 등을 이룰 것이다.

▲김용우=구겐하임 미술관을 짓게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오현섭=여수에 제7호점을 가져오겠다. 주민소득가 직결되는 만큼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이 중요하다.

▲김용우=미술관과 관련한 제정적 문제는.

▲오현섭=민간기부금, 정부지부금 등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을 것이다. 경제파급효과는 대단하다.

▲김강식=2002년 한 신문에 여수 엑스포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된건가.

▲오현섭=교차 지원 등 2015년 엑스포를 다시 한번 도전하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여수시장과 시민들도 공감한 내용이다.

▲김용우=구(원)도심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국제선 전용터미널 건립하겠다. 항공 및 해양스포츠산업 발전시키겠다.

▲심정우=여수고속도로 건설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언제 받아들일 것인가

▲김용우=조기에 SOC 관련 사업들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 마무리발언

▲심정우=정부는 아직까지 엑스포에 대한 구상이 없다. 내년 투표에 지면 유야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여수 엑스포에 대한 구상을 밝혀야 된다.

▲김용우=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적은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김강식=저는 경제전문가다. 여수가 살길은 2012년 세계박람회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꼭 유치하겠다.

▲오현섭=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김강식 엑스포 유치 위해 SOC 확충해야

김용우 수산업 육성 노인·여성 고용 창출

다양한 경험 여수 새롭게 디자인 오현섭

여수 전지역 해양일주도로 건설 심정우

'6월 27일 육로로' 의견접근

'DJ 방북' 남북실무대표단, 방북단 90여명 안팎 제시

남북은 김대중(DJ) 전대통령이 오는 6월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육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을 봤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DJ 방북' 실무대표단은 29일 북측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측 대표단과 제 2차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 수석대표가 밝혔다.

정 수석대표는 북측과 접촉을 마친 뒤 경의선 출입사무소에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다음달 27일부터 육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방북 일정과 관련, "6월 27일부터 30일로 한다는데 일단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방북 경로와 관련해 유동성이 있어 다음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열차를 이용해 방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표해 일단 '육로 이용'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또 구체적인 방북 일자와 방법, 방북단 규모 등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측은 방북단 규모와 관련, 특별수행원과 의료지원단, 정부지원단, 기자단 등 90명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내주중 제 3차 접촉을 갖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美, 한국전 때 난민사살 방침 세워"

당시 주한미국대사 서한 확인

한국전쟁 중 미국이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서한이 발견됐다.

당시 미 국무부 앞으로 보낸 이 서한은 1950년 노근리 학살사건이 자행된 바로 그 날 작성된 것으로, 한국전쟁 동안 모든 미군 부대에 대해 그러한 방침이 시달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고위층도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당시 존 머치오 대사는 딘 러스크 국무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피난민들이 미군 방어선의 북쪽에서 출현할 경우 경고사격을 하되, 이를 무시하고 남하를 강행할 경우에는 총격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고했다.

서한은 또 이러한 방침이 제7기병연대가 노근리에서 학살을 벌이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25일 미 8사단 고위 참모와 머치오 대사를 대리했던 해롤드 노블 1등서기관, 한국 관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이 모두 타계해 당시 이 서한을 받은 미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미 국방부는 AP통신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겁에 질린 병사들이 피난민 틈에 적이 숨어들어오는 것을 우려, 명령없이 발포한 사건으로 "불행한 비극" "비계획적 살상"이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훈련 여건 안되면 주한 공군 타지역 이전"

美,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서 압박

미국은 지난해 10월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한국에서 공대지사격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국방부가 지난 4월 작성한 '주요 국방현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SCM 때 한국에서 훈련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한 미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서 훈련 여건을 문제삼아 주한 7공군 전력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며, 실제로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을 대신할 추가 훈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공군은 전북 군산의 제8전투비행단(F-16C/D)과 경기 오산의 제51전투비행단(F-16C/D, A-10, C-12)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